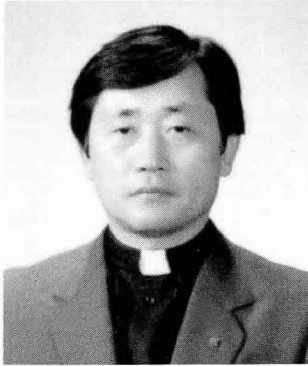


한국가톨릭 Hospice협회가 발족된지 근 1년이 되어가고 있다. 아직 어리지만 협회발전을 위해 회장단과 임원진 여러분이 꾸준한 노력과 헌신적인 봉사로 내실을 기하면서 내외적으로 성장되어 감은 참으로 기쁜일이 아닐 수 없다. 아직 뚜렷한 외적 결실을 공개적으로 내보일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많은 회원들의 호응을 얻어 크게 발전하리라 기대한다. 지금은 몇몇 병원내에 Hospice활동이 전개되고 있지만 구심점을 이루는 지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것이 아쉽다고 하겠다. 다행히 몇몇 뜻 있는 분들이 모여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Hospice, 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Hospice를 각각 특징을 살리면서 하나로 묶는 Hospice협회를 발족하게 된 것이다. 아직은 외국산 Hospice(?)를 도입, 말기 환자들에게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한국사람들에게 맞도록 한국적 Hospice(?)가 되도록 연구, 교육, 진료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Hospice지 창간은 그 역할을 해 내는데 길잡이가 될 것이다. 한국가톨릭 Hospice 협회와 Hospice지 발전을 위해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창간을 함께 축하한다.



**최 창 화**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지도신부

## Hospice지 창간을 축하하면서...

한국에서도 임종자와 치유되지 않고 죽음에 이르는 병 특히 말기 암과 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이를 위한 특별한 돌봄을 시작한 지 어언 30여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외국에서 특별한 분야로 발전하고 있는 호스피스케어로부터 된 것이며, 현 한국사회 구조의 특성과 생활양상, 개인의 욕구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우리나라에도 정착, 발전시켜나가야 할 사회복지관리, 건강간호분야 입니다.

1963년 호주의 수녀들에 의해 개원된 강릉의 갈바리의원에서 임종자 돌봄을 처음으로 시작한 이래 여러가지 형태와 프로그램으로 호스피스는 발전해 오고 한국사회에 그 인식이 뿌리를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적 호스피스케어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며 정보교환 내지 발전적 시도를 위한 모임이 필요함을 거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한국 가톨릭 호스피스 협회가 결성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협회의 회원을 중심으로 호스피스의 활발한 활동전개가 요망되며 차제에 호스피스 협회지가 탄생되는 것은 일보발전을 향한 매개체의 역할로서 중요한 시도로 생각합니다.

이무쪼록 사계의 관심과 회원의 적극적 참여, 호스피스케어 대상자들의 지지와 격려가 있을 때 이 작은 협회지의 사명은 완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소 우**  
한국 가톨릭 호스피스  
협회 회장